

긍정적 정신건강과 마키아벨리즘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Mental Health and Machiavellism

김혜수 (서울여자대학교, kihs801@naver.com)

윤정미 (서울여자대학교, y_jm2240@naver.com)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kimjy@swu.ac.kr)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Keyes와 Lopez(2002)의 정신건강 이요인 모델에 기초해 분류한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과 마키아벨리즘 수준 간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대학생 344명(남자 135명, 여자 209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와 마키아벨리즘 척도를 실시하였다.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정신적 웰빙 척도의 평균값($M=52.0$)과 심리적 갈등 척도의 평균값($M=19.7$)을 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상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고 심리적 갈등이 낮은 집단을 정신적 번영 유형, 정신적 웰빙과 심리적 갈등이 높은 집단을 분투 유형, 정신적 웰빙과 심리적 갈등이 낮은 집단을 정신적 쇠약 유형, 그리고 정신적 웰빙이 낮고 심리적 갈등이 높은 집단을 심리적 부적응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유형의 비율은 정신적 번영 37.8%, 분투 16.9%, 정신적 쇠약 16.9%, 심리적 부적응 31.4%이었다.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마키아벨리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에 따라 마키아벨리즘의 총점 [$F(3, 340)=10.82, p<.001$]과 하위차 원인 타인불신 [$(3, 340)=19.39, p<.001$] 및 비도덕적 조종 [$(3, 340)=6.30, p<.001$] 점수의 차이가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번영 유형의 전반적인 마키아벨리즘 수준이 심리적 부적응 및 분투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신적 번영 유형의 타인불신 수준이 심리적 부적응 및 분투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정신적 쇠약 유형의 타인불신 수준이 심리적 부적응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적 번영 유형의 비도덕적 조종 수준이 심리적 부적응 및 분투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적 번영 유형이 성격 특성의 다크 트라이어드(Dark Triad) 중 하나인 마키아벨리즘과 길항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 긍정적 정신건강, 마키아벨리즘, 정신적 번영